

교육 권한배분 시범교육지원청 운영 '효과'

전북교육청, 2021년 무주교육지원청 대상 시범운영... 3無 학교 추진 업무부담 없는 학교·공모사업 없는 학교 등 대부분 영역 긍정변화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교육 권한배분 시범교육지원청 운영' 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및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기반으로 지역별·학교별 특색에 맞는 교육생태계를 구축하고, 교육활동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무주교육지원청을 2021년 교육 권한배분 시범교육청으로 운영했다. 대상 학교는 무주교육지원청 소속 유치원 8개교, 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6개교 등 총 24개교다.

이들 학교는 '교육 권한이 학교에 있는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운영'을 목표로 ▲업무부담 없는 학교 ▲공모사업 없는 학교 ▲지시·간섭 없는 자율적인 학교 등 3無 학교를 추진했다. 시범교육지원청 운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시범교육지원청 운영 전·후 2차례의 설문조사와 면담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공동체 간 소통으로 행정업무 경감 노력'은 3.41~8.71, '행정업무 양의 적절성' 2.75~8.51, '학교기본운영비 증액' 3.61~8.94,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한 현안문제 해결

3.70~4.05로 시범교육지원청 운영 전 조사에 비해 운영 이후 조사에서 평균이 높아져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또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과 관련해서도 학교업무 지원에 만족 3.02→4.05, 단위학교와 소통 노력 3.75→4.14로 시범교육지원청 운영 전·후 결과 평균이 높아져 학교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단위학교와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연초 계획한 학교교육과정을 일관성 있게 운영한다'는 응답은 중학교보다 유·초등학교에서, 13학년 이상 학교보다는 12학년 미만 학교에서 운영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은 3.88~8.94로 10.06 증가에 그쳐 유의미한 변화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웠

후 중점적인 연구 지원의 필요성이 부각됐다. 한편 14개 시·군교육지원청 전체가 포함된 10단계 최도의 전북교육정책 만족도 조사결과에서도 입증됐다. 무주교육지원청의 2021년 교육정책 만족도는 8.17로 2019년 7.63, 2020년 7.09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 권한배분 시범교육지원청 운영 효과를 종합 분석한 결과 일부 영역을 제외하고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며 "무주교육지원청은 올해도 지역 특색을 살린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권한배분 시범교육지원청 2기, 김제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청 역할 전환 시범교육지원청으로 시범운영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세대교체·새로고침 청사진 제시 바란다"

전교조 전북지부, 천호성 전북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 확정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24일 천호성 후보의 전북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 확정에 따른 논평을 내고 "세대교체와 새로고침의 구체적인 청사진 제시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21일 전북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가 확정됐다. 지난해 6월 시작해 진행해 온 그동안의 단일화 여정에서 경선결과 관련해 후보 간 과열 양상이 다소 있었으나, 아름다운 경선을 위한 각 후보들의 노력, 전북 교육의 변화를 바라는 2백여 시민화단체와 12만 선출위원의 열정이 모여 무사히 단일후보를 확정할 수 있었다. 이번 단일후보로 확정된 천호성 후보는 전북 교육의 세대교체와 새로고침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누구를 교체하고 무엇을 새로고침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 뚜렷한 구

입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천호성 후보는 '중단없는 교육 개혁'과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라는 목표를 강조했다. '중단없는 교육개혁'을 이뤄나가려면 교장선출보직제 시행, 평가사 내부형공모제 확대를 통해 진정한 학교 민주주의의 기초를 마련하고 교사가 교실에서 교육활동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를 덜어내는 학교 업무 정상화가 필수다. 특히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며, 능력주의의 허상 속에 각자도생하게 하는 경쟁으로 내몰아서는 안된다. 불평등 양극화가 극단으로 치달고 있는 위기 상황을 기회로 만들어 교육이 가능한 학교 경쟁에서 협력으로의 교육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

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민주진보교육감 단일 후보의 역할이며 책무다. 마지막으로 이번 선출위원회 3명 후보들의 공통점은 '교사 출신'이라는 것이다. 교육 현장에서 누구보다 교육의 문제를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교사들이 교육감이 돼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의 반영이다. 그러나 일반 교사는 선출위원회 참여는 가능했지만, 이후 선거 과정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치적 금지상태'다.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까지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피선거권 연령을 25세에서 만 18세로, 정당 가입 연령도 만 16세로 낮추는 등 따라 학생들이 정치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교사들에게도 온전한 정치기본권이 확보되길 바란다. /정은성 기자

우석대 대학일자리센터 연차성과평가 '최고등급'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본부(이하 우석대 일자리센터)가 2021년 대학일자리센터 연차성과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은 지역 청년 고용촉진 사업의 핵심적 전달체계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진로 및 취·창업 지원 역할이 우수한 대학을 선정해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사업이다. 우석대는 이번 평가에서 ▲진로취업 인프라 서비스 강화 ▲진로 취·창업 상담 서비스 체계화 ▲진로 교과목 운영 내실화 진로 취·창업 프로그램 다양화 ▲청년고용정책 인지도 확산 ▲지역청년 유관기관 협업 강화 등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정은성 기자

방송통신중·고 신입생 모집

전북도교육청은 전북 지역 방송통신중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가정형편이나 기타 사유로 배우의 기회를 놓친 학생들에게 학업의 장을 마련해줌으로써 정규 공립 중·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함으로, 모두 무상교육이다. 전라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신입생 지원 자격은 초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동등 학력 소지자(기타 중학교 입학 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초등학교 해당 학력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다. 전형 방법은 무시험 서류 전형이고, 연장자 우선 선발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역 제한은 없으며, 다만 정원 초과시 전북지역을 우선 선발한다. 원서 접수는 1월 24일부터 2월 18일까지며, 전라중학교 1층 교무실로 본인 이 신분증 지참해 직접 방문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입학원서와 초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나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사본 1부, 여권을 사진 주민등록등본 1부 등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라중 교무실(063-252-2788)이나, 방송통신중학교 운영센터(1544-129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방송통신중학교 입학 후에는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으며, 출석 수업은 격주 토요일에 실시된다. 또한 전주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와 전주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한다. 대상은 중학교 졸업자 및 동등학력 소지자, 고입검정고시 합격자면 지원할 수 있다. 무시험 전형으로 연령제한없이 선착순 모집으로 이뤄진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문은 전주교는 063-283-3050(교무실), 063-283-0213(행정실)으로 전주교고는 063-710-5500으로 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jinh.nonghyup.com

농민조합원에게 농사연금을 드리는 전주농협!!!

조합원님!! 지식 같은 농산물 모두 팔아주는 농협을 만들겠습니다.

전주농협 산지유통센터 신축으로 전주시 통합마케팅 시스템 구축 로컬푸드직매장 10곳 개소로 영세농업인 소득향상

전주농협 산지유통센터

조합장 임인규

농민이 애국자입니다. 우리 농산물을 최고!!

전주농협농업조합 (063) 287-8111

기능성 발광소재 개발 '주목'

전북대 정광운 교수팀, 온도·편광 방향 감응 조절 소재 재료화학 분야 저명 국제 학술지 19일자 표지논문 게재



정광운 교수



강동규 대학원생

전북대학교 정광운 교수팀(고분자나노공학과)이 간단한 코팅 방법으로 온도 및 편광 방향에 감응해 광학 특성을 조절하는 기능성 발광 소재를 개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재료화학분야의 저명한 국제학술지인 '어드밴스드 펑셔널 머티리얼즈' 19일자 표지논문으로 선정됐다. 연구팀에 따르면 터피데인-백금 결합을 포함하는 액정 초분자를 이용해 우수한 발광 특성을 나타내면서도 온도 및 편광도에 감응해 발광 상태를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 기능성 광학소재를 개발, 이를 간단한 코팅 방식을 통해 박막 소재로 제조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확보했다. 또한 개발한 소재를 이용해 복호화 광학 보안 필터 등 다양한 분야의 적용 가능성을 보였다. 한편 이 연구는 미공군연구소(M

국), 로마 라사피엔자 대학교(이탈리아) 및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전북분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이다. 이번 연구를 주도적으로 진행한 강동규 박사과정생은 한국연구재단의 글로벌 Ph.D 펠로우십의 지원을 받아 연구를 수행, 지금까지 제1저자로써 10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또 국내외 학회에서 6건의 우수논문발표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강동규 대학원생은 "간단한 코팅 공정을 통해 제작 가능한 박막 형태의 발광소재는 미래지향적인 광학소자 산업에서 활용도 및 수명이 매우 많은 필수 소재"라며, "논문에서 보여준 것처럼 복호화 광학 보안 필터를 비롯해 다양한 광학특성 제어 디바이스에 응용이 가능하므로 산업 전반에 널리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황호진 전 전북부교육감과 송육진 전교조 전북지부장이 전교조전북지부 회의실에서 정책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현장과 소통하는 교육감 될 것"

황호진 전 부교육감, 전교조 전북지부 등 찾아 정책간담회

황호진 전 전북부교육감은 지난 18일 송육진 전교조 전북지부장, 19일 전북 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와 연이은 정책간담회를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전교조 전북지부장과는 정책간담회에서 송육진 지부장은 "시·군지역 장기근무와 관련해 지역교육발전의 일환으로 일부 선생님의 헌신적인 노고와 역량에 대해 재평가 필요하다고 선생님들을 중용해야 한다"며 "지역 소멸 위기를 느끼고 있는 군지역의 장기근무자 중 탁월한 역량을 갖추고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계속해서 혁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교사노조의 정책간담회에서는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을 비롯한 유, 초, 중, 특수 학교급별 대표자 10여 명이 함께했다.

전북교사노조의 정책간담회에서는 ▲지역별 거점 돌봄 유치원 지정 운영 ▲초등돌봄 업무에서 교사 제외 ▲초등학교 전담교사 배치 기준을 교사의 수업수 중심으로 개선 ▲교과외담임 등에서 송육진 지부장은 "시·군지역 장기근무와 관련해 지역교육발전의 일환으로 일부 선생님의 헌신적인 노고와 역량에 대해 재평가 필요하다고 선생님들을 중용해야 한다"며 "지역 소멸 위기를 느끼고 있는 군지역의 장기근무자 중 탁월한 역량을 갖추고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계속해서 혁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교사노조의 정책간담회에서는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을 비롯한 유, 초, 중, 특수 학교급별 대표자 10여 명이 함께했다. 연이은 정책간담회를 통해 황호진 전 부교육감은 "전교조 전북지부장과 전북교사노조의 연이은 정책간담회는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함께 정책의 방향에 대해 논할 수 있었던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며, "늘 소통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현장과 소통하는 교육감이 되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전북도 공학교육혁신거점센터, 자율주행 교육 성료

전북대학교 공학교육혁신거점센터(센터장 임인제)는 '아두이노 기반 자율주행 교육'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8일~20일까지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진행된 이번 교육에는 6개 대학(전북대, 공주대, 광운대, 순천향대, 전남대, 충남대)에서 32명의 학생이 참가했다. 이번 과정에서는 자율주행 기본 원리와 아두이노 기초 교육, 자율주행차 조립 및 동작 프로그래밍, 라인트레이서/동작 테스트, 원격제어까지 이론과 실습 등이 진행됐다.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 참가 학생들도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강사진이 구성돼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정은성 기자



참가한 학생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프로그램에 임했다. 이일제 센터장은 "좀 더 많은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해 운영했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